봉은사 '도움벨' 장애인 접근성 높인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 맞아 보리수아래 동행취재기

봉은사, 전구간 휠체어 이동 가능
일반 화장실도 보호봉 설치 눈길
장애인전용 팻말·도움벨 설치 등
문턱 낮은 미륵전, 참배가능 구조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보건복지부가 2021년 발표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63만 3000명. 인구대비 5.1%에 달한다. 공공성 높은 종교시설과 건물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는 것이 의무인 이유다. 장애인 불자단체 보리수아래는 사회적 약자가 접근 용이한 환경을 갖춘 사찰을 파악해 사회에 알리기 위해 '장애인이 가기 좋은 절 조사연구사업'을 시작했다. 4월 13일, 서울 봉은사에서 진행한 조사를 동행취재 했다. 〈편집자주〉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입구에서 만난 포교부 이호상 팀장의 안내에 따라 경내로 진입했다. 보리수아래 최명숙 대표는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곳으로 화장실을 꼽았다. 장애인들이 외출 시 불편함을 느끼는 대표적인 곳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대다수 사찰 화장실에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갖춰져 있지만 실용성 없는 곳이 적지 않다.

봉은사에는 보우당과 전통문화체험관에 남녀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돼 있다. 일반 화장실에도 일부 변기에 보호봉을 설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최명숙 대표는 "화장실로 가는 공간까지 휠체어가 충분히 지나다닐 수 있도록 길을 정돈해 시설 구축 전부터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봉은사가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안내 팻말과 도움벨.

천년고찰 봉은사는 편의시설 한계 극복과 이동약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문턱을 낮추고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3군데에서 2017년 6면으로 늘려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고 위치 또한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로 옮기며 접근성을 더했다. 사찰 출입문인 진여문에서 법왕루와 대웅전에 이르는 언덕길의 경사를 낮추는 공사도 함께 진행해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등이 큰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봉은사는 휠체어로 전 영역 이동이 가능하다. 종무소와 매화당에 휠체어 2대를 상시 배치, 이용자가 원할 때 언제든 사용 가능케 한 것도 특징이다.

장애인을 위한 전용 팻말과 도움벨도 인상적이다. 입구부터 각 전각, 이동경로 등 30여 곳에 전화번호가 적힌 표지판과 도움벨을 설치, 불편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화는 경비실과 종무소로 연결되며 호출 즉시 상근자가 대면해 도우미 역할을 하는 형태다. 종무소에는 장애인 전담은 아니지만 총무봉사연등 봉사자 15명이 교대로 상근하며 호출에 대한 안내를 돕고 있다.

이숙재 총무봉사연등장은 "절에 오는 분들이 누구든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도반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안내하고 도와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륵전 앞은 장애물 없이 정돈 돼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법당에 자유로이 들어가 참배하고 법문도 들을 수 있는 구조다. 실제 미륵전에서는 장애인법회가 봉행되기도 했다.

경내 곳곳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해 놓은 것도 눈에 띄었다. 주요 전각으로 향하는 진입로, 핸드레일 등에 점자를 설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양간(향적원) 앞은 특히 신경을 쓴 것이 눈에 띄었다. 난간과 조립식 경사로를 설치, 이동약자들의 이용에 무리가 없게 배려했다.

2시간가량 봉은사 경내를 살펴본 보리수아래 최명숙 대표는 "우리나라 대표사찰인 만큼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안내판, 난간,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갖추어져 있어 반가웠다"면서 "특히 포교팀장이 먼저 경내를 점검하고 상세히 안내를 해 준 것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배려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경내를 안내한 이호상 팀장은 "부처님을 멀리서 바라봐야만 하는 장애인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힘쓸 것"이라면서 "노후된 곳은 교체하고 위험한 구간은 개선하도록 꾸준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제27회 포교사 고시에 총 471명 응시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은 4월 9일 제27회 일반포교사 및 국제포교사 선발 자격고시를 시행했다.〈사진〉

이번 27회 포교사 고시에는 일반포교사 448명, 국제포교사 23명 총 471명이 응시했다. 지역별로 는 서울 142명, 인천 · 경기 · 강원 10명, 충남 20명, 충북 25명, 전북 28명, 광주 · 전남 16명, 대구 85명, 경북 27명, 부산 59명, 제주 19명이다.

고시장은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비롯해 탄허기념불교박물관, 봉선사 불교대학, 마곡사 불교대학, 법주사 불교대학 등 전국 13개 장소에서 마련됐으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거리두기 등을 준수하며 시험이 치러졌다.

포교사단 고시 현장에서는 지역단장들이 찾아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성수 서정각 서울지역단 단장은 "여기 계신 분들이 시험에 합격해 추후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로터스월드, 캄보디아 비로자나 초등 신축

비로자나국제선원 함께 건립
교실동 6칸 · 체육시설 구성
학생 90명 장학금 지원 약속

불교국가 지역민들 삶의 질 제고와 빈곤퇴치를 위해 힘쓰는 사단법인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와 비로자나국제선원(주지 자우)의 도움으로 캄보디아 시엠립주에 위치한 마을 어린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로터스월드와 비로자나국제선원은 4월초, 캄보디아 시엠립주 꾸어군, 꺼우깍(Kok Kak) 마을에 '꺼우깍 비로자나 초등학교' 신축을 지원했다.

이번 학교신축 지원은 캄보디아 시엠립 교육부가 오지마을에 초등학교를 지원해줄 것을 로터스월드에 요청하며 진행됐다. 로터스월드 캄보디아 아동센터 원장 선문 스님으로부터 열악한 교육환경을 전해들은 자우 스님이 학교 신축 후원을 발심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비로자나 국제선원에서는 주지 자우 스님을 중심으로 불자들이 십시일반 모금을 진행해 학교건축비 전액을 마련했다.

학교가 신축된 꺼우깍 마을은 인근지역에 초등학교가 없어 아이들이 등교를 위해 최소 5Km(도보로 약 1시간)를 걸어야 하는 지역으로 특히 어린 학생들은 등교에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다. 이번 학교 신축을 통해 꺼우깍 비로자나 초등학교는 2022학년도 유치원 및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약 90명의 신규 학생을 등록받아 정식으로 개교했다.


로터스월드와 비로자나국제선원이 캄보디아에 신축한 초등학교 외경.

학교 시설은 총 6칸 규모의 교실동(약 432㎡, 총 131평)과 급수시설, 화장실, 운동장, 체육시설, 정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책걸상, 칠판 등 교육기자재도 함께 지원됐다. 조성된 학교 시설은 캄보디아 정부에서 규정한 학교 표준 시설 규격을 준용하고 아동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체육 및 조경 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등 시엠립주 뿌어군 내의 학교 시설 중 상위권의 교육여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학교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현지 여건에서도 새학기 학생들의 정상적인 등교를 위해 후원자인 비로자나 국제선원과 로터스월드, 시엠립 교육부, 지역관계자의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됐다.

꺼우깍 비로자나 초등학교의 개교를 맞아 입학생 전원에게 교복, 체육복 및 학용품도 지원한 비로자나 국제선원 자우스님은 "앞으로 추가 모금을 통해 학교도서관과 교무실 등을 지원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용품 및 장학금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포교원, '창원용지호수의 길' 개발

리플렛 보급, '지혜의 숲길 순례수첩'도 발간

순례는 불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에게 사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나아가 사찰로 인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신행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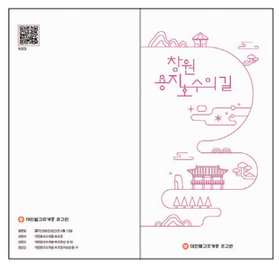
순례에 대한 대중 관심을 바탕으로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이 '지혜의 숲길' 2번째 프로그램인 '창원 용지호수의 길' 을 개발했다.

포교원은 올해 2월 순례프로그램 개발사업을 통한 새 신행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허응당 보우의 길' 을 개발, 포교사 250여 명과 함께 순례를 한 바 있다.

두 번째 성과물인 '창원 용지호수의 길' 은 경남 창원 시내를 관통하여 순례하는 것으로 용지문화공원을 출발해 성산아트홀 - 창원광장 - 용지사거리 - 창원 가로수길 - 경남도민의 집 - 용지호수공원을 거쳐서 용지문화공원에 도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순례 팜플렛에는 각각의 장소들이 지니는 가치와 의미를 사진자료와 함께 실었다.

이에 포교원은 포교원장 범해 스님과 교역직 스님들 및 경남지역 포교사단 포교사들과 함께 4월 16일 2시 '창원 용지호수의 길' 을 순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포교원은 '지혜의 숲길 순례 수첩' 을 발간했다. 포교원은 '순례수첩' 을 제작한 이유에 대해 "불자들이 쉽게 몸에 지닐 수 있는 걷기순례 자료가 필요하다는 사부대중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포교연구실에서는 추후에 순례길이 개발되는 대로 '순례 수첩' 에 그 내용을 반영해 계속 업그레이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순례 수첩에는 걷기순례의 의미와 순례방법 안내를 필두로, 그간 포교원에서 개발한 '천은사 상생의 길', '화엄사 어머니의 길', '허응당 보우의 길', '창원 용지호수의 길' 순례코스가 실려 있다. 또한 각자 다녀온 순례길과 순례에 대한 기억을 기록할 수 있는 메모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는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안내도 실었다.

포교원은 "지속적으로 순례길을 개발하여 우리 사찰의 아름다운 길을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기장군불교연합회 · 연합신도회

불기256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점등식

불기2566년 부처님오신날(2022년 5월 8일)을 맞이하여 기장군불교연합회와 연합신도회가 주최하는 봉축점등식(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을 4월 23일 저녁 6시부터 장안사 사리탑전에서 자체행사로 간소하게 봉행합니다.

※참여하시는 분은 필히 마스크 착용바랍니다.

■일시 : 2022년 4월 23일 오후6시
■장소 : 천년고찰 장안사

사회 | 문화국장 보혜스님
집전 | 해광사 태공스님, 고불사 해월스님

식순
6:00 개막 28타종식
6:10 저녁예불
6:25 본행사
· 삼귀의
· 반야심경
· 발원문 (신도회장)
· 환영사 (장안사주지 무관스님)
· 봉축사 (회장 정오스님)
· 헌화공양
6:50 점등 및 탑돌이 (석가모니불정근)
7:00 축원 및 사홍서원



우공침술
개·인·지·도

딱 6일 만에 우공이 개발한 TLS 침법을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침술경력 30년이 넘었다는 한 스님이 저에게 침술을 배우던 중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공 선생님, 돈 많이 버시죠?"

수업 중 뜬금없는 물음에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는 저의 반문에 스님은
"허리통증으로 고생하는 신도들에게 선생님께 배운 TLS 침법을 써 보니 효과가 너무 좋아서, 이런 침법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을 것 같아서요."

30년 이상 써 왔던 스님 자신의 침법도 나름 효과가 좋다고 생각해 왔는데, 저에게 배운 침법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였다며 "TLS 침법 끝내줍니다!"하며 감탄해 했습니다. 저는 그러는 스님에게 스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TLS 침법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지 않다고 말을 했더니,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침법이 거기서 거기지"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저에게 침술을 배운 또 다른 분은
"선생님이 개발하신 TLS 침법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앞서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생각할 수 없는 것이겠죠." 라고 말하며 역시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개발한 기가 막히는 TLS 침법을 널리 알리고 보급하는 일이 탄력을 받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제가 개발한 TLS 침법은 우리 몸의 모든 통증들을 치료하는 데 기발한 침법입니다. TLS 침법은 어깨통증, 허리통증, 무릎통증에서 기가 막힐 정도로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처럼 기가 막히는, 그리고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TLS 침법을 개인지도를 통해 딱 6일 동안에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방분들은 제가 방문하여 개인지도 해드리며 3일 간의 속성으로 완벽하게 TLS 침법을 전수해 드립니다.

NAVER 우공침술 ▼ 검색 하시면
저의 블로그에 접속되며, 그곳에서 침술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공침술연구원 문의전화 : 010-4054-7110